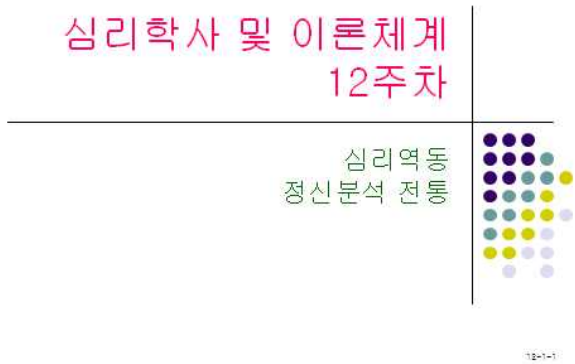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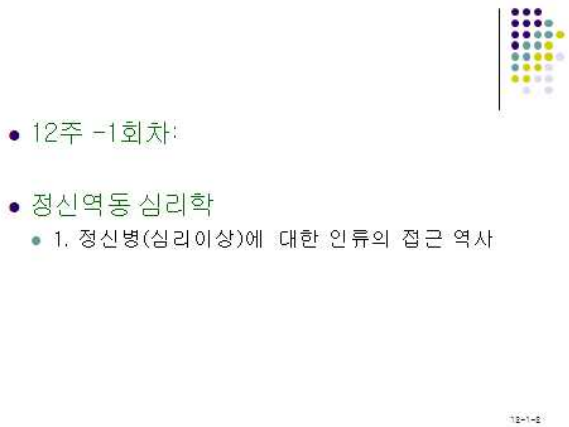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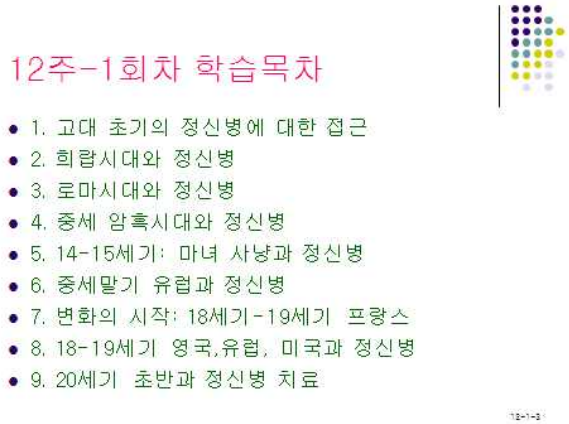


12-1강 file no.1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 1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다. 12주차 내용은 심리역동, 정신분석 전통에 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심리적 이상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접근해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고,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만, 프로이트 이론에 관한 이야기는 강의 2 회 차에 가서야 이야기되고, 1 회 차에서는 프로이트 이전의 심리역동에 관한 생각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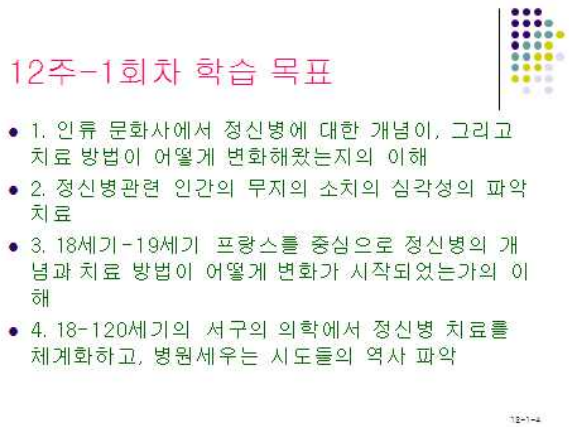


12-1강 file no.2



12-1강 file no.3

12주 1회 차 학습목차는 고대 초기의 정신병에 대한 접근, 희랍시대의 정신병에 대한 생각들, 로마시대의 정신병에 대한 관점, 중세 암흑시대 14 세기 및 15세기 그리고 중세말기, 또 18세기 및 19세기 프랑스, 영국, 유럽 다른 국가, 미국 등의 국가에서의 관점, 20세기 초의 서구의 정신병에 대한 생각과 치료방법 등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다. 2회 차에서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정신분석을 넘어서, 정신병, 심리이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왔는가의 흐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2-1강 file no.4

12주 1회 차 학습목표를 보면 정신병에 대한 견해 및· 치료방법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심리학 형성 이전에 정신병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의 소치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심각한 내용을 파악하고, 18세기와 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정신병에 대한 개념과 치료방법이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 18세기와 20세기에 서구의 의학에서 정신병 치료를 체계화하고 병원을 세운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다.

- http://www3.niu.edu/acad/psych/Millis/History/2002/Treatment.htm

- 물음???

내가 옛날에 살았었고 정신병이었다면
어떤 처우를 받았을까?

12-1-6

12-1강 file no.4

12주 1회 차 강의의 내용은, 만약 그 옛날에 내가 살았고, 내가 정신병 증상이 있었다면 어떤 처우를 받았을지 상상해 보면 이해와 기억이 잘 될 것이다.

- 정신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 역사는
- 미침 ➔ 정신병 ➔ 심리적 이상 으로의 개념적 변화
- 따라서 '정신병', '정신의학', '정신병학' 이라는 한국어는 심리학사적 입장에서 볼 때에, 틀린 부적절한 용어지만
- 관습상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함

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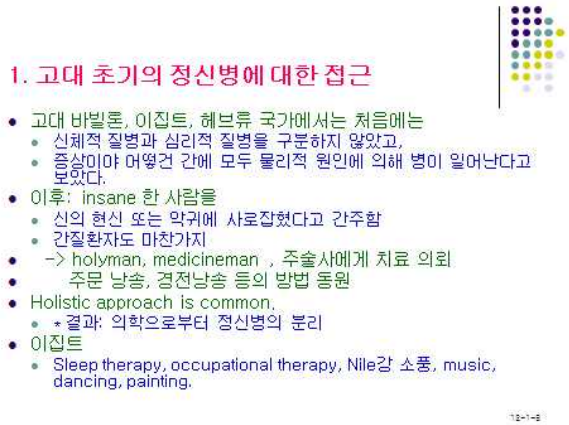
12-1강 file no.6

정신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보아서 정신병을 '사람이 미친 것'으로 보았다가, 다음에 의학에서 정식으로 '정신병'으로 다뤄졌다가, 오늘날 '심리적 이상'으로 보는 관점의 점진적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정신병이라든지 정신의학 정신병학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사적 입장으로 볼 때 19 혹은 20세기 초기에 사용된 낡은 용어이고 엄밀하게 따져서는 정신의학. 정신병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틀린 용어이고, 한국에서 통용되는 '정신'이란 용어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비과학적 개념이다.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늘 사용하고 있다지만 실험심리학, 이론심리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는 비과학적 개념이다. '심리적 이상'이란 용어로 바뀌어야 하지만,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신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12-1강 file no.7



12-1강 file no.8

고대 초기의 바빌론, 이집트, 헤브류(이스라엘) 국가 등에서 정신병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면 신체적 질병과 심리적 질병을 구분하지 않았고 증상이 어떻든 간에 모두 다 신체적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병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런 관점이 점차 변화해서 그 이후에 정신병 환자를 '미쳤다'라고 생각하였다. 미친 사람을 신의 현신, 혹은 악귀에 사로잡혔다고 간주하게 되었다. (성경 신약에서 기술하는 방식). 간질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생각 했다. 이러한 정신병 환자들은 사람들은 부족에서 신과 소통하는 주술사 같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의료해서 주문이나 경전을 낭송하는 것으로 치료하였다. 정신병은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의술에서 배제되었다. 대신 이집트에서나 수면 치료라든지, 직업치료라든지, 나일강에서 목욕 등의 활동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무용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던지 이런 방법이 사용되었다.

12-1강 file no.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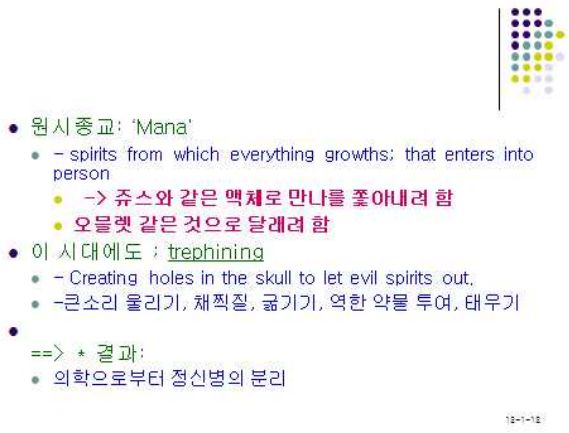
12-1강 file no.10

기원전 1000년쯤에 Homer가 일리아드, 오딧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정신질환이 왜 생기냐하면 신이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뺏어갔기 때문에 생긴다고 했고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호머의 책은 정신질환에 대해 언급한 가장 오래된 문서라고 평가된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구약에 욥기에서 욥이 절망 속에서 (현대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심리적 이상 질환을 보였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결국 거기에서 강조하는 치료법은 신에 대한 신앙이다. 구약에서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과대망상증적 정신병 증후를 보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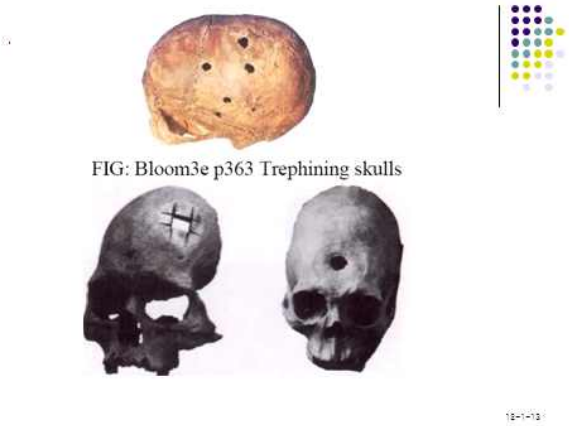
12-1강 file no.11

그 다음에 원시종교에서 '만나(Mana)'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을 자라게 하는 그런 영혼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영혼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 이런 '만나'를 쫓아내려고 하면 쥬스와 같은 액체로 쫓아내거나 오믈렛같은 것으로 달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대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뇌에 구멍 뚫기(Trephining)'라는 것으로 뇌에 구멍을 뚫어서 뇌 속에 있는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던 시도였다. 그러한 방법 이외에도 환자 머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울리는 것이라든지, 정신병자를 채찍질 한다든지, 굶긴다든지, 역한 냄새나는 약물을 투여해서 그것에 의해 악령을 쫓아내려 한다든지, 아니면 머리털을 태운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악령을 쫓아내려고 했고, 이런 여러 시행 과정에서 의술과 정신병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해서 정신병이 의술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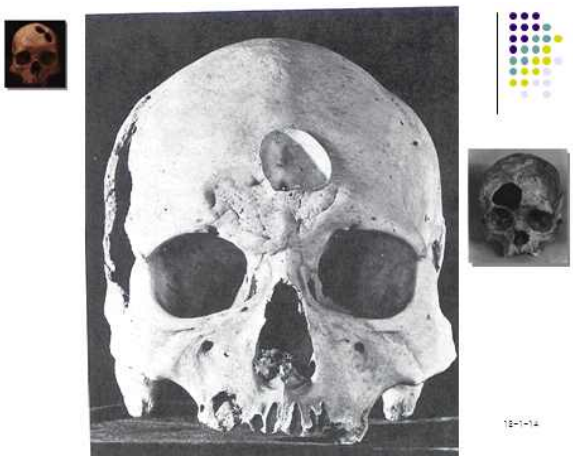


12-1강 file no.12



12-1강 file no.13

그림에 보이는 것은 고대시절에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려고 뇌에 구멍을 뚫은 자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머리 정수리 쪽으로 구멍을 여러 개 뚫어낸 것이 보이는가 하면 아래 왼쪽 그림에서는 상당히 크게 뚫었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마에 구멍을 뚫어서 악령을 쫓아낸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그림도 구멍을 뚫은 것인데 이 세 개의 그림 모두 대개 앞쪽에서 구멍을 뚫은 것인데 우리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12-1강 file no.14

그 다음 그림은 고대 페루에서 안데스 문화지역에서 정신병 걸린 사람의 뇌에 구멍을 뚫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보는 상황에서 의식이 있는 사람의 뇌에 구멍을 뚫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12-1강 file no.15

그 다음에도 고대 중남미에 두개골 구멍 뚫기 장면 그림인데, 그림을 보면 참 충격적이다. (미개한 그 시대가 아닌 지금에 내가 태어난 참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과 함께) 그 당시에는 이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12-1강 file no.16

다음에는 고대를 넘어서 희랍시대로 들어가면서 정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살펴보겠다.

2. 희랍시대와 정신병

12-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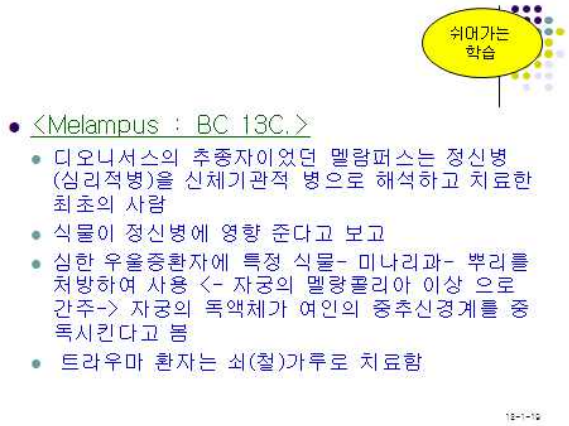
12-1강 file no.17

먼저 희랍시대에는 '신성한 모델(sacred model)' 시대라고 해서 정신병 들린 사람을 신성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신에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고, 그리스 신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신에게 진노를 사서 죽거나 정신병이 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면 신전에 있는 사제에게 가면, 사제가 신의 행세를 하면서, 정신병을 가져가거나 쫓아낸다고 봤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남아있는 무당(신내림), 푸닥거리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정신병의 일종인 히스테리아는 여자에게만 있고 몸 전체를 배회하는 자궁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했고 정신병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했다.

- 〈희랍시대: sacred model 시대〉
  - 그리스 신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신의 진노를 사서 죽거나 정신병이 든다고 봄
  - 1. 사제의 역할 : 신전에 있고, 미친 사람을 신전에 데리고 가면 사제가 신 행세를 하여 정신병을 가져가거나 쫓아낸다고 봄 (정신병이라고 생각 안 하였으니까)
  - 2. 히스테리아가 여자에게만 있고, 몸 전체를 배회하는 자궁으로 인해 생긴다고 봄
    - **3. 간질병자는 Heate에게 기도/ 히스테리아 여자는 Artemis에게;**
    - **우울증자는(신이 경멸하여 우울증이 됨) Trophonius &Anphiaraus의 신전에 선물을 드려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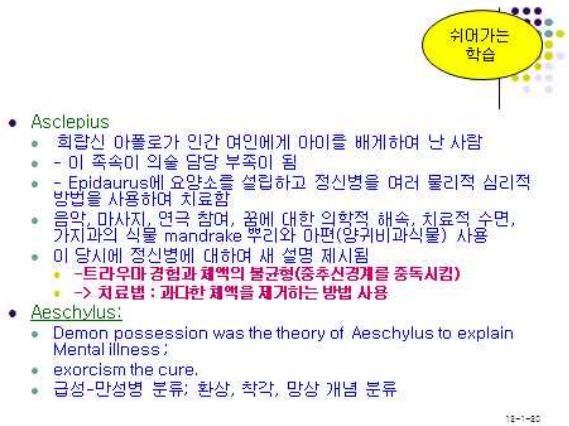
12-1-18

12-1강 file no.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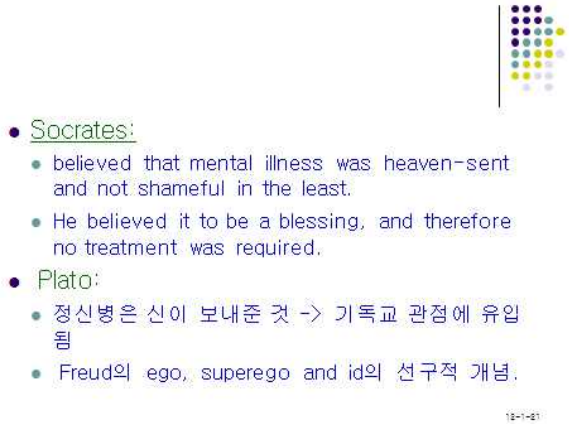
12-1강 file no.19

13 세기에 멜람푸스(Melampus)라는 사람은 정신병을 신체 기관적 원인의 병으로 치료를 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식물이 정신병에 영향을 주고 고쳐준다고 봐서 미나리과 식물의 뿌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한다고 봤고,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쇳가루로 치료를 하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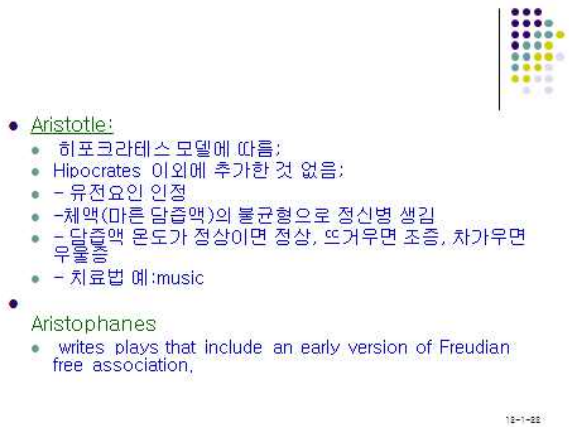
12-1강 file no.20

희랍 시대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신과 식물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정신병을 다루려고 했다. Asclepius는 과다한 체액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희랍시대의 저명한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로의 히스테리아(hysteria) 이론에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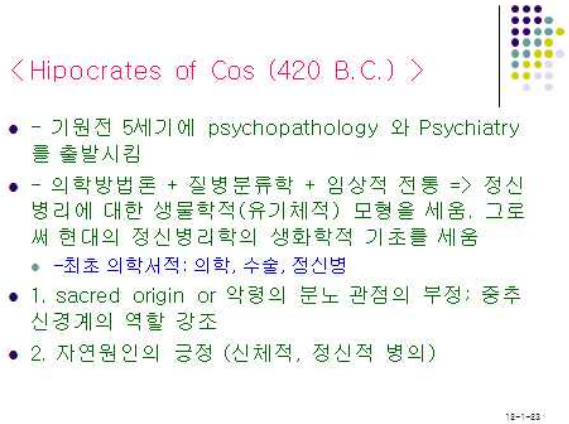
12-1강 file no.21

그 후에 소크라테스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것이고, 수치스러울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축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했다. 소크라테스에 이어서 플라톤은 정신병은 신이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희랍적 생각들이 기독교 관점에 유입되어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나타나게 된다. 플라톤의 이데아의 여러 계층 개념은 (이것은 강의 초기에 이미 설명했는데) 후의 프로이트에게서 다른 형태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ego', 'super ego', '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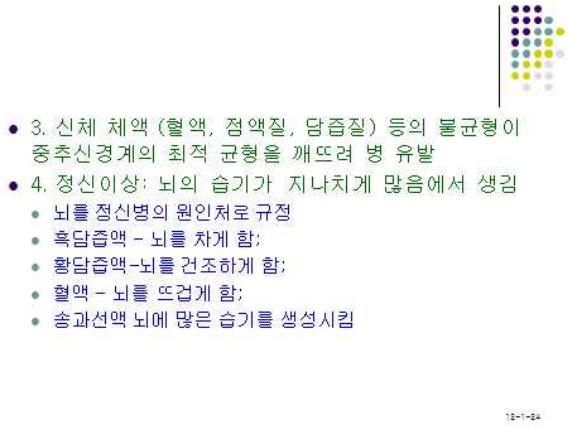


12-1강 file no.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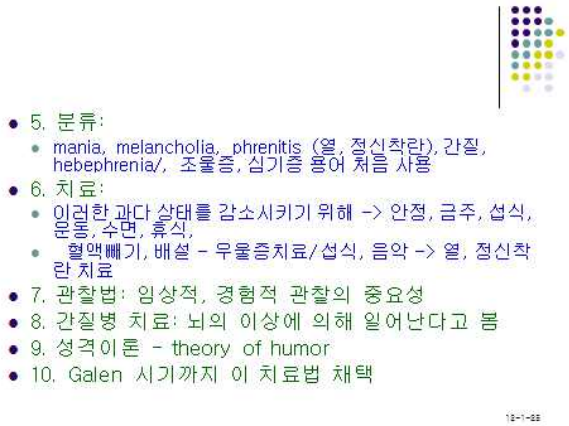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히포크라테스의 관점 이외에 별로 추구한 것이 없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병에서 유전적 요인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희랍에서 널리 퍼졌던 생각, 즉 체액, 담즙액의 불균형으로 정신병이 생긴다고 봤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생각을 답습한 셈이다. 그는 담즙의 온도가 정상이면 정상이고, 뜨거우면 조증이 나고, 차가우면 우울증이 나는, 그런 입장을 제시 했다. 정신병에 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획기적인 것이 없었다.



12-1강 file no.23



12-1강 file no.24



12-1강 file no.25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of Cos 또는 Hippokrates of Kos; 기원전 약 460 – 기원전 약 370년)의 정신병 관점을 기술하겠는데, 기원전 5세기에 그는 정신병, 정신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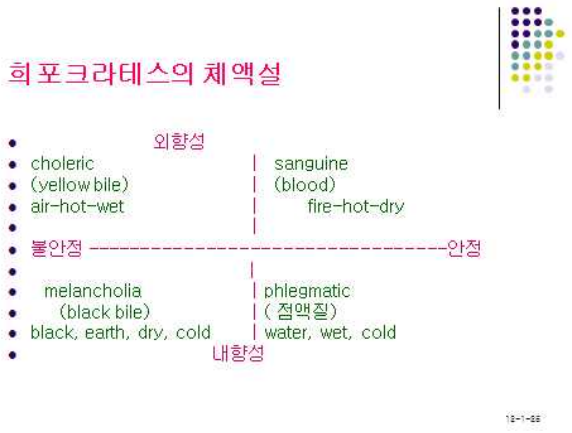
학, 정신의학을 출발시키고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의학방법론과, 질병분류학, 그 다음에 임상적 전통,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정신병리에 대한 생물학적, 유기체적 모형을 제시하고 현대 정신병리학의 생화학적 기초를 세웠다. 정신병을 신체적인 유기체적인 물리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의학자라고 볼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신체적 병이나 정신적병이나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고 중추신경계가 체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이 생긴다고 봤다.

그는 신체 체액, 혈액이라든지 점액질, 담즙질 등의 불균형이 중추신경계의 최적균형을 깨뜨려서 병을 유발한다고 보았고, 정신이상이 오는 까닭은 뇌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으면서 생긴다고 보았다. 히포크라테스가 뇌를 정신병의 원인처로 규정했다는데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 그는 담즙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흑색의 담즙액은 뇌를 차갑게 하고, 황색은 뇌를 건조하게 하고, 혈액은 뇌를 뜨겁게 하고, 뇌의 송과선에서 나오는 액은 뇌에 많은 습기를 생성시키는데, 뇌에 습기가 많다보면 정신이상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또한 히포크라테스는 정신병을 분류했는데, mania, melancholia, phrentis, 간질, hebephrenia, 조울증, 심기증의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오늘날 정신분열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사용되는 개념들의 원천이 히포크라테스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러한 체액의 불균형 과다상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안정을 한다든지, 금주를 한다든지, 섭식, 운동, 수면, 휴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른 방법은 그 당시부터 20세기까지 쭉 내려온 사혈이라고 하는 혈액빼기 방법이라든지 배설 등을 사용을 한다고 보았다.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다른 치료법을 쓴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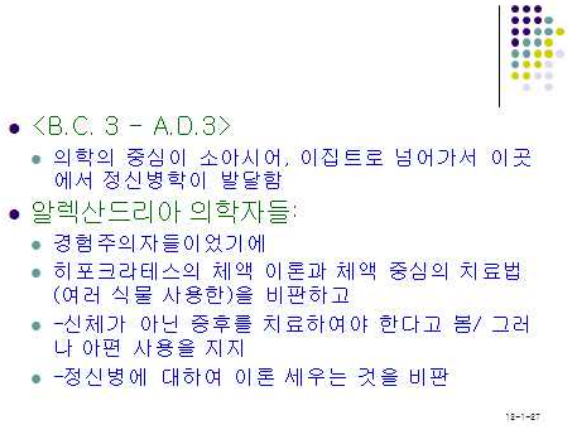
그 다음에 간질병도 뇌의 이상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았고, 성격이론도 세웠는데 체액을 중심으로 성격이론도 세웠고, 로마 시대의 Galen이 나올 때까지 히포크라테스의 방법이 계속 사용되었다. 다음에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설과 성격 유형의 분류 그림이 제시되는데,



12-1강 file no.26

이것은 강의 초에 희랍의 히포크라테스를 언급하면서 얘기했고 성격심리나 이상심리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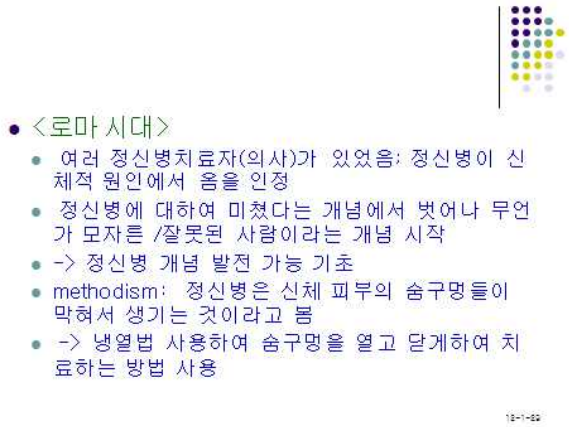
다음에는 기원전 3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3세기 로마 시대 까지의 희랍-로마 시대의 의학을 간단히 언급하겠다. 그 당시의 의학의 중심이 희랍에서 소아시아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곳에서 정신병학이 발달 했다. 그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은,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경험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이론과 체액 중심의 치료법은 경험적인 실험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비판하고, 신체가 아닌 증후별로 치료해야 한다고 보았다. 히포크라테스처럼 정신병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런저런 이론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지녔다.



12-1강 file no.27

[로마시대와 정신병]. 로마시대에 정신병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기원전 3세기에서부터 1세기 사이에는 독단론자들이 있었다. 무슨 독단론자들이냐 하면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을 신봉하는 독단론자들이 이 당시를 주름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과 대립해서 심리역동론자들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나 스토아학파 등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히포크라테스 이론과는 달리, '개인의 자아가 정신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가 약하면 정신병에 걸린다'는 입장이었다. 강한 자아가 정신병 원인의 하나인 정열(passion)을 극복가능하게 한다며 그래서 강한 자아를 심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passion에 대한 논의는 http://en.wikipedia.org/wiki/Passions_(philosophy) 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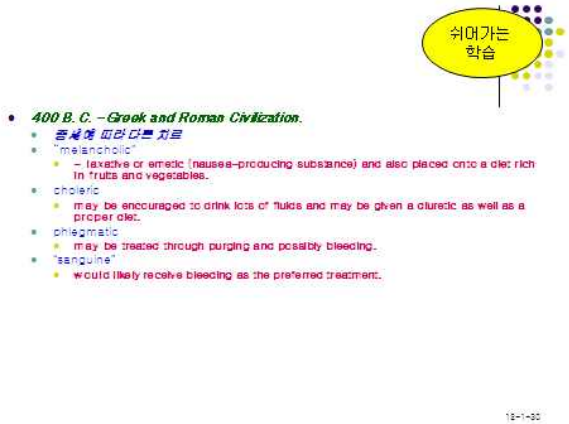
12-1강 file no.28



12-1강 file no.29

로마시대에 정신병에 대한 생각이 여럿 있었는데, 사람들은 정신병이 신체적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신병에 대해서 '미쳤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무언가가 모자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관점의 전환으로 현대적 개념의 정신병 개념이 발전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이 미치게 했다든지, 체액이 과다하다든지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론이 시작될 수 있게끔 하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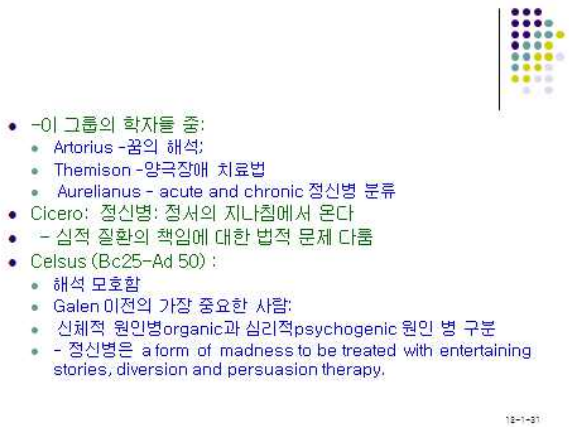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정신병은 피부의 숨구멍들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거나 냉혈법을 사용해서 숨구멍을 열고 닫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오늘날 사용하는 요양법도 사용하는 정도이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정신병 증후에 따라서 다른 치료를 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사항이다.



12-1강 file no.30

그 다음에 Asclepiades가 정신병의 원자적 모델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자세한 물리적 또는 생물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사이의 구멍이 너무 크면 심적 착각이 생긴다고 봤는데, 중추신경계는 세포와 세포 전달물질로 되어있는데 세포의 크기와 세포전달물질이 움직이는 속도가 균형을 이루면 정상인데 그 균형이 깨어지면 정신병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상당히 물리적인 신경생물적인 입장에서 이론을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는 정신병을 환상 착각 망상 급성만성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치료법을 목욕이라든지 아편, 와인, 인삼의 비슷한 가지뿌리 등을 사용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하여간 그런 것보다도 정신병이 사악한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후세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다.

12-1강 file no.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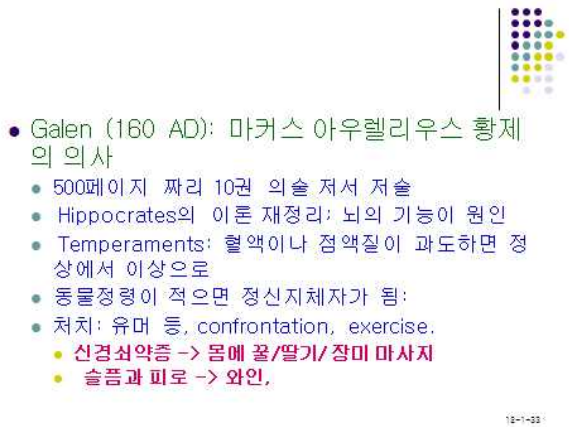


다음에 시세로(Cicero)는 정신병은 정서의 지나침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정신병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Celsus는 신체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을 구분하기는 했는데, 어떤 자료에서 보면 Celsus가 정신병을 인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는 반면 다른 자료에서 보면 정신병치료는 심하게 학대를 해야 치료가 된다고 그렇게 봤다고 하는 자료도 있다.

하여간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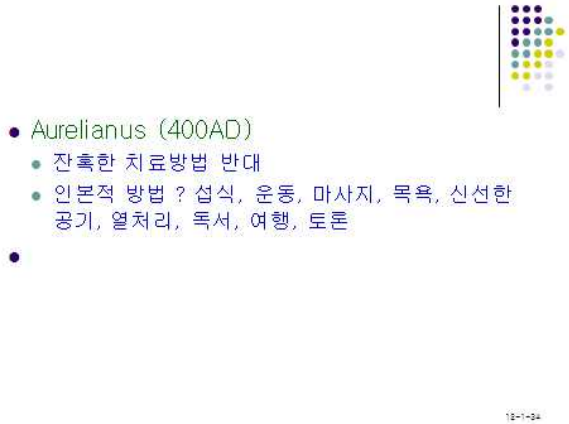
12-1강 file no.32

로마시대에 'Pneumatism'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심장에서 생명력, 즉 생기가 만들어져서 몸으로 전파되고 뇌까지 가고, 가는 동안에 온도가 끈끈하게 변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정신병이 생긴다는 생각인데 이런 개념이 17세기 Descartes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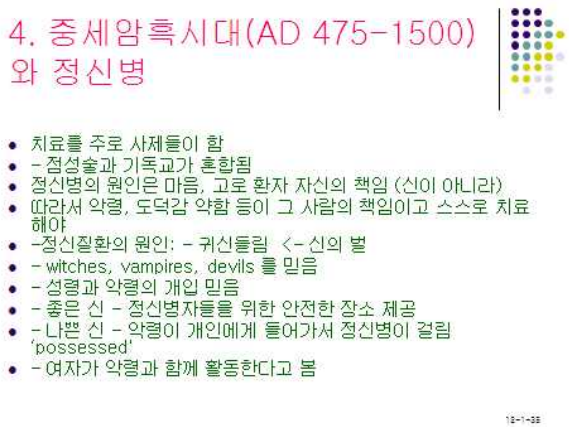
12-1강 file no.33

로마시대에 가장 유명한 의학자였던 Galen은 마쿠스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의사였는데 500페이지짜리 의술 저서를 열권이나 저술했고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을 재전개해서 뇌의 기능이 정신병의 원인이라고 봤고, 그러나 히포크라테스처럼 체액, 점액질이 과도하면 정상에서 이상으로 변화한다고 봤으며,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제시했었다.



12-1강 file no.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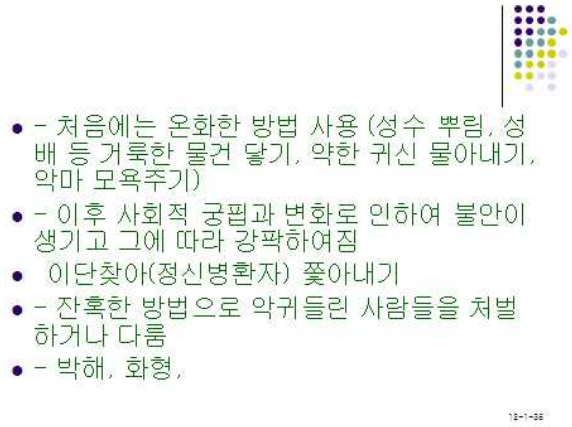
그런데 아우렐리아누스 시대에 오면서 정신병의 잔혹한 치료방법들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인본적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해서, 습식 운동, 마사지, 목욕 심지어는 공기 열처리, 독서, 여행, 토론 등의 그런 입장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마치 19세기 유럽의 정신병 치료방법과 같은 것을 이미 200 내지 300 여 년 전에 내놨다고 볼 수가 있겠다.



12-1강 file no.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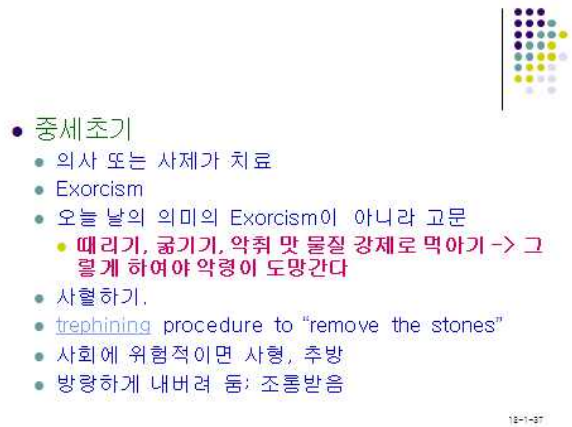
다음에 중세 암흑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중세암흑시대에 넘어와서는 치료를 주로 사제들이 했다. 여기서는 점성술과 기독교적 관점이 혼합되고 정신병의 원인은 마음이라고 보고 '신이 개입한 것이라기보다는 환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악령이 들어서 생기나, 악령이 들어온 이유는 개인이 잘못한 것이다, 도덕감이 약하다든지 죄를 범했다든지 그러한 것이다' 라고 봤다. 그래서 정신질환의 원인은 귀신들린 것이고 개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리거나 귀신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마녀 뱀파이어, 흡혈귀, 악마 이런 것들을 믿게 되고 성령과 악령이 개인의 마음에 개입해서 정신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었다. 이 당시만 해도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 강했기 때문에 여자가 악령과 활동한다고 봤고 마녀는 있었지만, 마남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로 여자, 나쁜 사람, 악령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했다.



12-1강 file no.36

그래서 무엇으로 치료를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온화한 방법을 사용했다. 성당에 있는 성수를 뿌린다든지 성배와 같은 거룩한 물건을 몸에 대어본다던지 그 다음에 약한 귀신은 그 정신병 들린 사람을 마구 욕하면 욕을 견디다 못해서 그 사람 속에 있던 악령이 도망간다고 봤다. 이것은 상당히 온화한 방법인데 이후에 중세사회가 궁핍해지고 점차 불안해짐에 따라서 정신병에 대한 치료방법도 강박하여지기 시작하였다. 정신병 환자는 마귀, 악령이 들렸다, 이것은 이단자다, 기독교에 반대되는 악마가 들어간 것이라고 해서 이단자를 찾아서 악마를 쫓아내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악귀 들린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다뤘다. 마구 때려서 죽이거나 화형에 처하거나 그런 방법들이 사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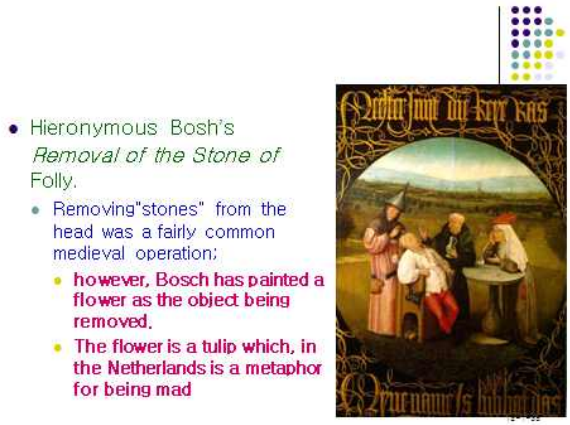


12-1강 file no.37

중세 초기에는 그래서 성당에서 사제가 치료한다던지 의사가 치료한다던지 하는데 치료방법은 주로 엑소르시즘(Exorcism), 그러니까 악령 쫓아내기 방법이었는데 악령 쫓아내기 방법이 오늘날에 공상영화에서 보는 Exorcism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고문이었다. 정신병 들린 자는 악령이 들렸다고 보았으니까 두드려 패서 악령을 쫓아낸다던지 굶겨

서 굶다 못해 악령이 도망간다던지. 악취가 나는 또는 그런 맛의 물질을 강제로 먹여서 악령이 도망가게 한다던지. 아니면 혈관을 잘라서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를 통해서 악령이 흘러나간다고 봤다.

그 다음에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옛날 고대시대 때 사용하던 방법이 중세에 다시 부활되었다. 사회의 위협적이면 추방하고, 정신병자들을 떠돌이 생활하게 노숙자로 살게 내버려두고 그런 노숙자가 마을에 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려대고 그렇게 했다.



12-1강 file no.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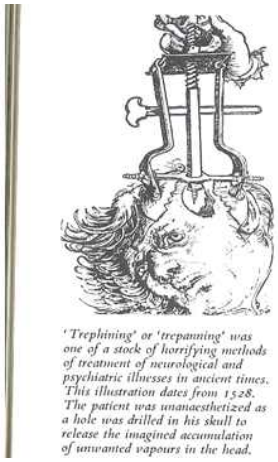
다음 그림에서 중세 초기에 정신병들린 사람의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악령을 쫓아내는 수술 그림이 제시되었는데, 그 다음 그림은 이 상황을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중세의 뇌에 구멍 뚫는 모습: 치료 목적

12-1강 file no.39

그들은 '치료 목적으로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악령이 만든 돌을 꺼낸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는 카톨릭 사제가(신부)가 관여하였다.



'Trephining' or 'trepanning' was one of a stock of horrifying methods of treatment of neurological and psychiatric illnesses in ancient times. This illustration dates from 1528. The patient was unanaesthetized as a hole was drilled in his skull to release the imagined accumulation of unwanted vapours in the head.

중세의 뇌 구멍 뚫기 기계

12-1-40

12-1강 file no.40

위그림은 중세에 사용되었던 '뇌 구멍 뚫기 기계'인데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뇌에 구멍을 뚫는데 마취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 있는 사람을 정신병이 들렸다고 해서 이런 기계를 가지고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악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아래 설명 글의 날짜를 보면 1528년으로 되어 있다. 16세기까지 이런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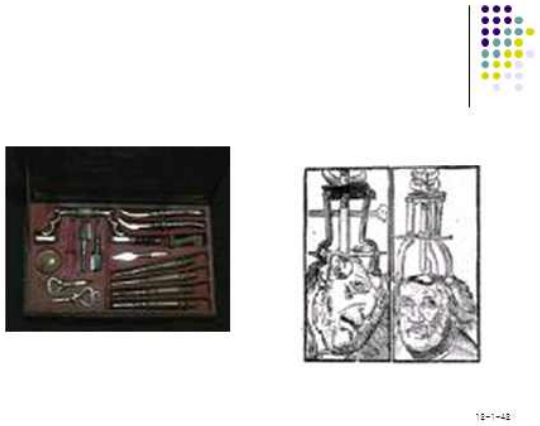
Cautery, burning of the scalp and face, was another strategy for the fifteenth-century neurologist. This illustration from Studien zur Geschichte der Medizin shows cautery of an epileptic.

중세에 머리와 얼굴에 불을 질러 치료하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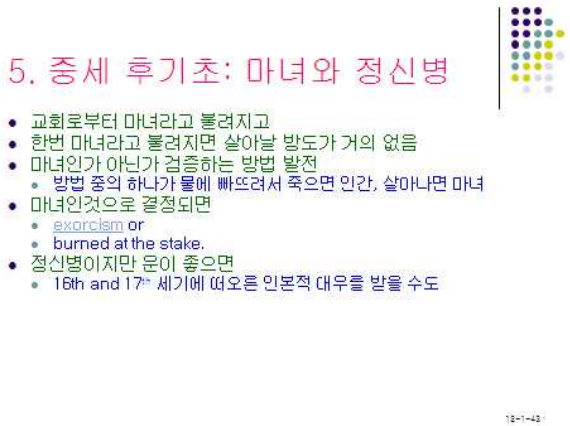
12-1강 file no.41

또한 중세에 머리와 얼굴에 불을 질러서 치료하던 시술을 'cautery' 라고 하는데, 악령이 머리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머리에 불을 지르면, 이 악령이 코로, 귀로, 아니면 입으로 달아날 것이라고 해서 머리털에 불을 지르는 그런 치료법을 사용했다.

다음에 머리에 구멍을 뚫는 그림이 있고 왼쪽에는 머리에 구멍을 뚫기 위한 도구 일습이 보여지고 있다, 오른 쪽 그림에는 정신이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머리에 구멍을 뚫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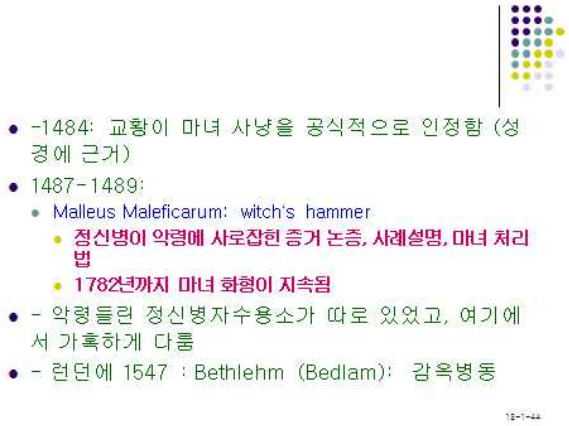
12-1-42



12-1-43

12-1강 file no. 42 & 43

그 다음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중세 초기부터 초기, 중기, 후기에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이어졌고, 중기, 후기 이때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당시에는 정신병 들린 사람은 대부분 여자라고 보았다. 그들을 마녀라고 부르고, 한 번 마녀라고 불려지면 살아날 방도가 거의 없고 죽임을 당하는데, 마녀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됐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신병 들린 사람을 물에 빠트려서, 죽으면 인간이고 살아나면 마녀로 생각했다. 죽으면 인간인데 정신병 들렸으니까 죽어도 할 수 없고, 살아나면 마녀니까 별도로 따로 죽여야 하는 것이다. 마녀인 것으로 결정이 되면 악령을 쫓아내기 위하여, 두들겨 패거나, 앞에 했던 것처럼 이상한 물질을 강제로 먹이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그렇게 했다. 정신병자이지만 운이 좋으면 16세기나 17세기에 떠오른 인본주의적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 있겠다.



12-1강 file no.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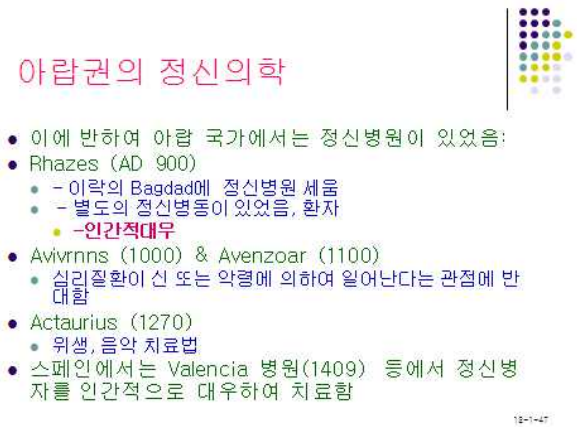
1483년에 교황이 공식적으로 '마녀사냥을 해도 좋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것이 카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되었다. 1487년에 Heinrich Kramer라는 독일 사제에 의해 'Malleus Maleficarum'(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마녀를 파악하여 찾아내고, 정신병이 악령에 사로잡힌 증거를 논증하고, 사례를 설명하고, 마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진 일종의 매뉴얼적인 책이었다. 이 책이 많이 활용이 됐고 1782년까지 마녀에 대한 화형이 계속 되었다.

12-1강 file no.45

16세기, 17세기에 들어가면서 정신병자 수용소가 따로 생겼는데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윗 그림에 이 당시에 정신병 환자들이 악령이 들렸다고 마귀가 들렸다고 해서 화형을 당하던 상황이 그려져 있다. 정신병자를 그냥 화형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와서 구경하곤 했다.

12-1강 file no.46

그 다음에도 장작더미 위에다 정신병 환자를 태워 죽이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조금은 너무하다고 여기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렇게 형편없이 식의 생각이 일반인에 의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반면 그와는 달리 당시에 과학적으로 선진국들이었던 아랍권의 국가들의 정신의학에서 보자면 그들은 달랐다.



12-1강 file no.47

아랍국가에서는 정신병원이 약 1000여년 전인 이미 AD 900년경에 있었다. 지금은 의학이 형편없는 후진국가로 생각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들 보다 과학이 앞서 있어서 보다 일찍 정신병원이 따로 세워져 있었고 인간적 대우를 해서 치료를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심리질환이 신 또는 악령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등 그런 관점에 반대를 하는 이론을 이미 오래 전에 제시했고, 치료방법도 음악치료방법과 같은 현대적인 위생적인 치료방법 등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소위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서구 국가보다도 600년 내지 700년 앞 선, 그런 입장이 당시의 아랍권의 과학적 관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서구 국가 중에서 아랍권에 가장 가까웠던 스페인에서는 당시에 유럽 국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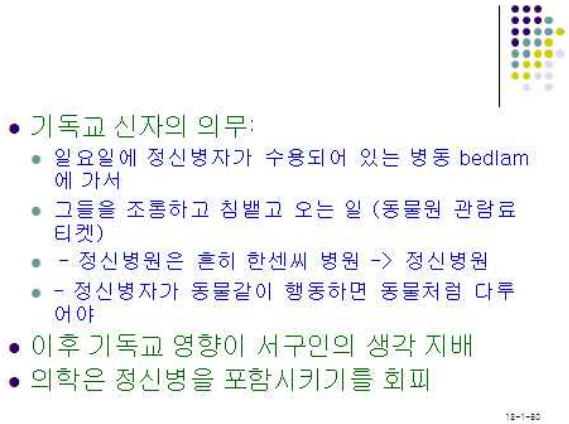
에서 아랍인들이 점령해서 아랍권(사라센) 문화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1409년에 이미 스페인의 도시 발렌시아에 정신병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병원이 있었다.

12-1강 file no.48

그 다음에 1300년 내지 1600년 경에 중세 말기에 영국 런던의 Bethlehem의 병원에 정신병자를 감금을 해두는 감금해두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요양소라기보다는 일종의 감금소이었다. 이 병원에 감금된 죄수들은 아주 최악의 상황에 있었다. 죄수처럼 감방에 일반 범죄자와 같이 갇혀있었고, 신선한 공기도, 빛도 없고, 음식도 최소한으로 주었고, 정신병 환자들을 침대나 벽에 쇠사슬로 묶여있게 하였고, 자신과 감방동료의 대소변 위에 누워서 지내게 했고, 마룻바닥에 다섯 명 이상의 다른 심한 병자 또는 죄수들과 매트리스를 함께 써서 누워 자게 했고, 그래도 깨끗하게 못 지내면 심한 구타를 당했고, 사회로부터 망각되고, 버림받고, 그냥 내버려둬서 결국은 죽게 했다. (이 감옥소에서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과 그 방법들에서 사용한 기구들은 다음 링크의 내용 끝에서 볼 수 있다. Abnormal Psychology / Mental Illness History and Treatment; http://frankiesgirl6yr.hubpages.com/hub/Abnormal-Psychology-Mental-Illness-History-and-Treatment).

12-1강 file no.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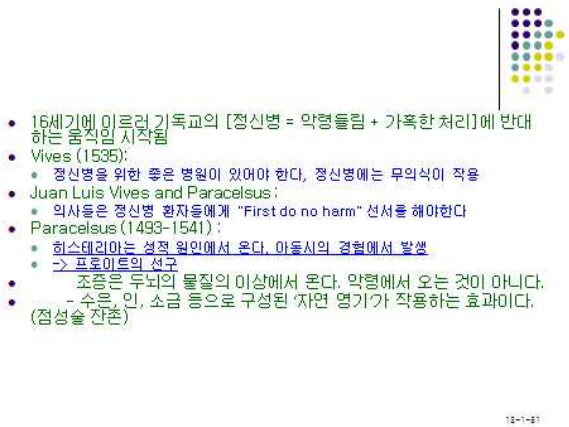
윗 그림은 이 당시에 정신병자가 어떤 처우를 받고, 또 어떤 식으로 감옥에 갇혀있었나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인데 이 그림은 그래도 양호한 것이다. 다른 자료를 보면 어깨 양쪽으로 묶여있고 팔에 쇠가 묶여있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겨우 눕기만 할 수 있게 쇠막대로 묶여있었다고 한다.



12-1강 file no.50

그 다음은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기독교신자의 의무가 일요일에, 교회(미사)가 끝나면 정신병자가 수용 되어있는 병원에 가서 그들을 조롱하고 침 뱉고 오는 일이었다. 마치 동물원 관람료처럼 티켓도 팔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일요일에 성당에 갔다 오는 길에, 아니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정신병자가 수용되어있는 병원에 가서 정신병자 즉 악령, 마귀가 들었다고 하는 환자들한테 침을 뱉고, 자신이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면서 집에 오는 그러한 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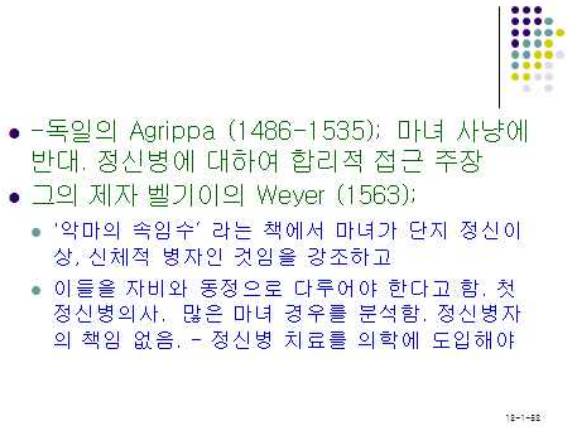
정신병자들은 흔히 한센병,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환자와 같이 갇혀있고, 정신병자가 동물처럼 행동하면 동물처럼 다뤄야한다고 해서, 마치 동물, 죄수, 사회의 쓰레기, 죽어야 할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다. 이러한 기독교의 영향이 서구인의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의학은 정신병을 의학에 포함시키기를 계속 기피했다.



12-1강 file no.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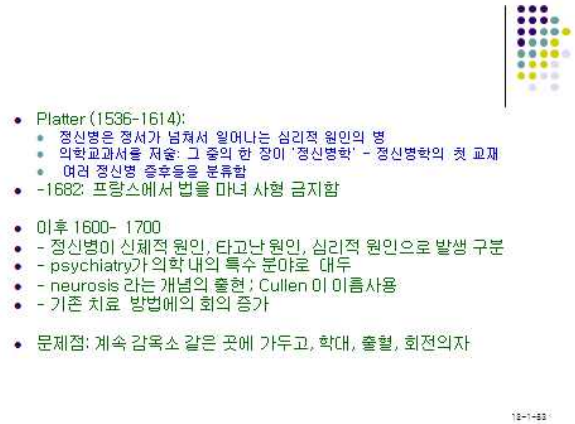
16세기 이르러서야, 정신병은 악령 들린 것이고 가혹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유명한 이태리의 인문 학자인 Vives(Juan Luis Vives; 1493-1540)는 당시에 과학과 학문의 중심이었던 네델란드에 살면서 정서, 기억, 학습 등에 대한 현대적 심리학적 관점을 제시했으며 (그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그는 '정신병을 위한 좋은 병원이 있어야 한다.', '정신병에는 신의 개입이 아닌 인간의 의식이 작용해야된다', 또 '의사들은 정신병 환자들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선서를 해야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Paracelsus(1493-1541)같은 학자는 '히스테리아는 성적 원인에서 온다.', 그리고 '아동시의 경험에서 발생한다.', '조울증의 조증은 악령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고 주장하여서 프로이트가 나중에 19세기에 얘기할 것을 미리 제시했다.



12-1강 file no.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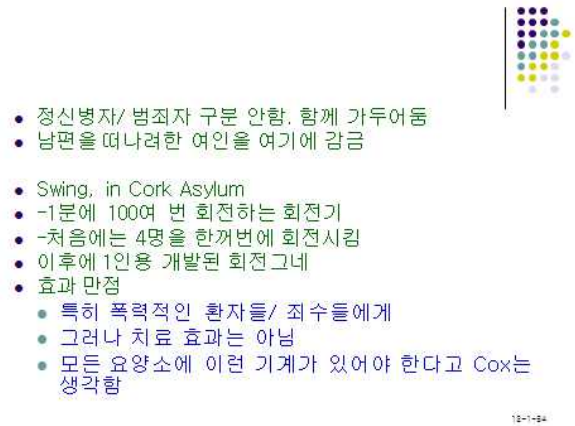
또한 독일의 Agrippa(1486-1535)같은 학자는 마녀사냥에 반대해서, '정신병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벨기의 의사 F. Weyer같은 사람은 '정신병을 자비와 동정으로 다뤄야 한다', '마녀나 악령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정신병 치료를 의학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12-1강 file no.53

그 다음에 Platter(1536-1614) 같은 사람은 '정신병은 정서가 넘쳐서 일어난 심리적 원인의 병' 라고 해서 정신병학이 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1682년에는 프랑스에서 법으로 마녀사냥 금지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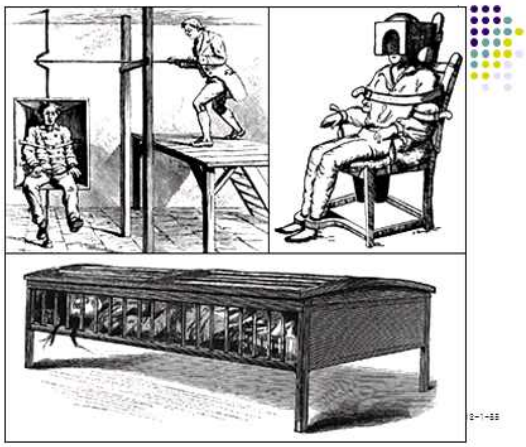
돌이켜 보면 서구의 기독교 문화에서 거의 1000년 동안 정신병을 악령 들렸다고 취급해서 '마녀 사냥'을 계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후에 점차 정신병이 신체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 구분이 되고 정신병학 정신의학이 의학내의 특수 분야로 대두가 되었지만, 의학의 일부에서만 그랬지, 현실의 일반 사회에서는 정신병자를 계속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고 혈관을 자르거나 회전의자에 돌리거나 하여 증상을 없애려 했다.



12-1강 file no.54

그 다음 그림에서 회전의자가 제시되는데, 1분에 100여 번 회전하는 회전그네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4명을 한꺼번에 회전시키는(구토가 나거나 의식을 잃게 됨) 집단 처치를 했는데, 이후에는 1인용으로 개발된 회전그네를 만들었다. 막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꼭꼭 묶어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진정시키게 하는 그런 의자였다. 요즘 국내에 오락시설 큰 곳에 가면 회전그네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오락용이 아니라 정신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목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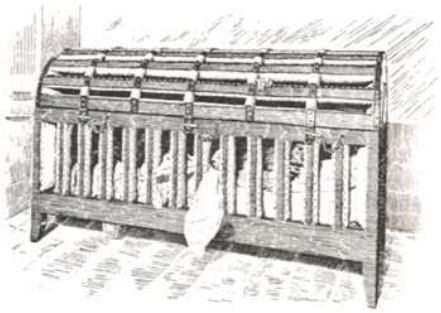
로 만들었던 것이다. 즉 그런 오락 기구에 타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정신병자가 된 기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2-1강 file no.55

다음 그림에서는 정신병자를 가두어서 움직이거나 활동하거나 하지 못하게 가둬하는 (결국은 환자가 자학하게 하는) 침대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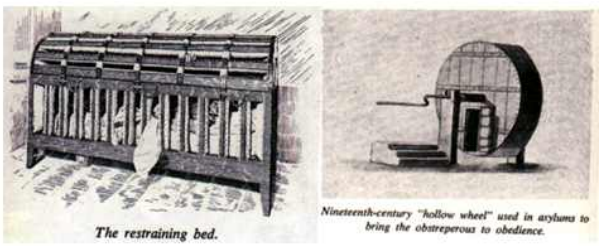
12-1강 file no.56



The restraining bed.

12-1-57

12-1강 file no.57



The restraining bed.

Nineteenth-century "hollow wheel" used in asylums to bring the obstreperous to obedience.

12-1-58

12-1강 file no.58

그 다음 그림도 그런 침대를 그림이다. 윗 그림 오른쪽에서 보면 텅 빈 회전기가 있었는데 막 야단법석을 피우는 정신병자 같은 경우는 이 회전기에 집어넣고 막 돌려서 의식을 잃게 만드는 그런 치료법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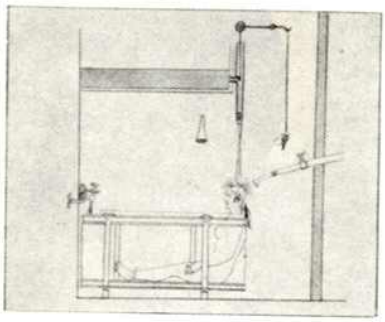
- Bedlam에 14년간 갇혀있던 사람의 말:
  - • He had an iron bar around his neck, two iron bars passing over each shoulder, and iron bars holding both arms against his sides. These were connected by a short chain to a pipe on the wall so that he could lie down on his back but could not otherwise move. In addition, his leg was also chained to the bed. He had remained chained in this way for more than 12 years."

12-1-59

12-1강 file no.59

다음에, 베들레헴 병원-감옥소에 갇혀있었던 사람의 말이 있다. 그들은 정말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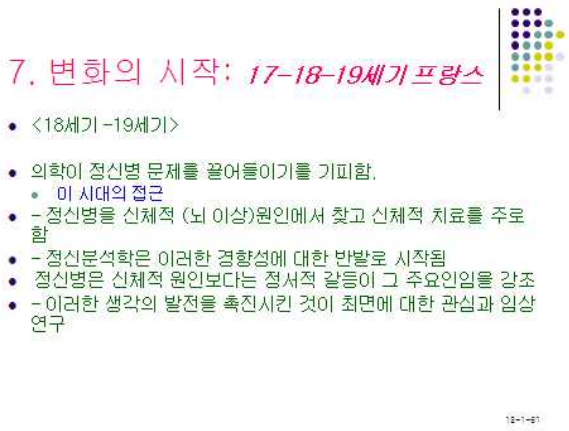
"목 주위에 쇠고리를 하고 있었다. 양 어깨에 쇠막대가 있었고, 이 막대들은 양팔을 양편에 고정시켜 놓았다. 이 막대들은 벽에 있는 파이프와 짧은(겨우 누워만 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발은 침대에 쇠사슬로 묶여져 있었고, 이러한 상태로 12년 이상을 지내야 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에 감사해야 한다.



Noncooperative patients tied in a salt-water tub and punished with a hosing in nineteenth-century Germany.

12-1강 file no.60

그 다음 그림은 중세시대에서부터 19세기까지 독일에 있었던 정신병자 치료 욕조 그림이다. 말을 안 듣는 정신병환자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소금물욕조에 집어넣고 이 사람에게 소금물을 호스로 뿌리는 그런 처치로 이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정말 기막힌 얘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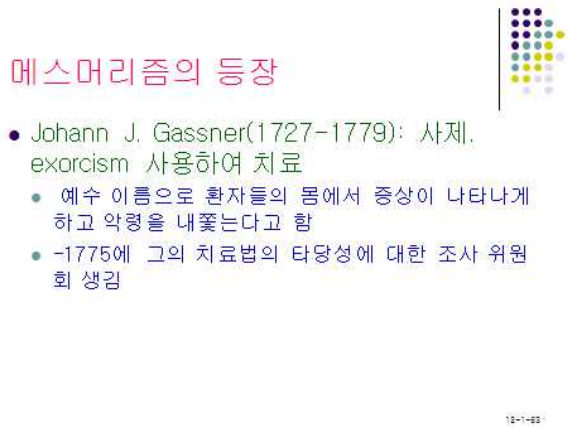
12-1강 file no.61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를 넘어서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17세기에 시작되어서 주로 18세기,

19세기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문화의 중심이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다. 의학이 정신병을 자기들 학문의 한 분야로 다루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당시에 정신병을 신체적으로 뇌의 이상의 원인에서 찾고 신체적 치료를 하려는 그런 혁신적인 시도가 시작됐는데 이런 생각을 발전시킨 것이 최면에 대한 관심과 임상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다.

12-1강 file no.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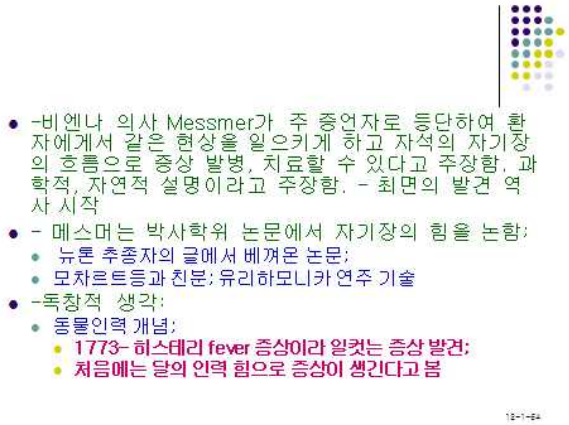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후에 '사기'라고 비판받게 된 메스머리즘(Mesmerism)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Mesmerism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실제는 '최면효과'인 것이 드러나서 자석의 자기효과가 가짜인 것이 판명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최면의 중요성과 무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다.



12-1강 file no.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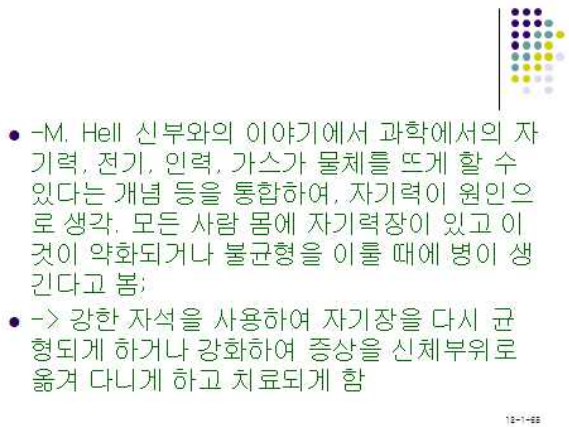
Mesmerism의 등장을 보면, 처음에 엑소시즘을 활용하던 사제(카토릭교 신부) 가스너(Johann Joseph Gassner, 1729-1779)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환자들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하고 또 자석을 사용하여 (중세의 Paracelsus의 입장) 악령을 내쫓는다고 했다.



12-1강 file no.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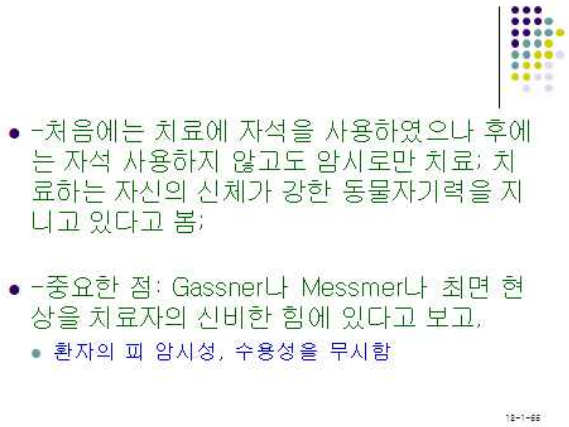
그것을 1977년에 비엔나의 의사 Messmer(Franz Anton Mesmer, 1734-1815) 보고는 그는 다른 생각을 했다. 즉 정신병은 악령에 침입에 의해서 오는 (즉 신이 개입된) 병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동물영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동물 영기가 조화를 못 이루면 정신병이 생기며, 이 정신병은 자석에 의해 치료될 수 있어서, 즉 자석의 자기장의 흐름의 조절로 증상이 발병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메스머가 이러한 자기장의 자기 힘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 이론이 아니라 중세의 Paracelsus의 생각과 뉴턴 추종자의 글에서 베껴온 이론이었다. 어쨌든 그는 메스머는 정신병이 신이나 악령이 아니라 과학적 자연적 설명과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최초의 심리치료가였다.



12-1강 file no.65

그 당시는 뉴턴 등에 의해서 과학혁명이 이루어져서 사회 전반에 '만유인력' 등 새 과학 개

념이 주목을 받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메스머의 '자기력에 의한 치료'라는 관점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자기력이 정신병의 원인으로 보고 모든 사람 몸에 자기력 장이 있고 이것이 약화되거나 불균형을 이룰 때 병이 생긴다고 보고 강한 자석을 사용해서 자기장을 다시 균형되게 하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



12-1강 file no.66

그는 처음에는 치료에 자석을 사용했지만, 후에는 자석을 사용하지 않고 암시로만 치료하고 치료하였고, Messmer 자신의 신체가 강한 동물의 자기력을 지니고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치료의 능력이 치료자에게 있고 환자의 특성에 있다고 본 것이 아니다. 그는 처음에는 환자의 피암시성 이런 것을 무시했다.

12-1강 file no.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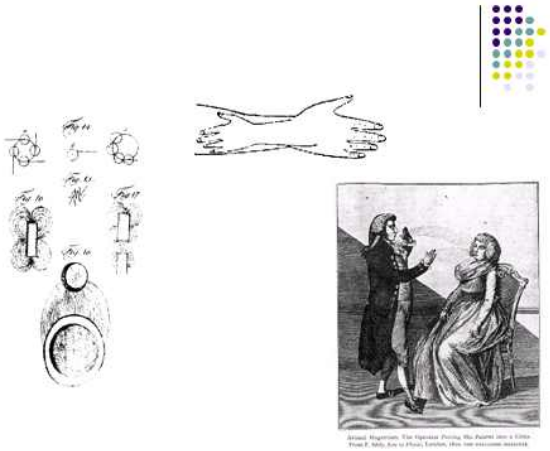
- Mesmer (1774)
  - 공개 안하고 비밀스럽게 자석치료를 수행함
  - 집단 치료
  - 환자들이 화학물질로 차있고 이상한 막대가 나와 있는 목욕 욕조 주변을 둘러싸면
  - 메스머는 그 화학물질 액체에 젖은 쇠막대를 가지고 환자의 환부에 문지르고
  - 때로는 환자들에게 철분약을 먹게 하여 자석 자기가 잘통하게 함

12-1강 file no.68

사기라고 학회의 비난을 받았지만 Messmer는 비밀스럽게 환자들을 자석치료를 했는데, 주로 집단치료를 하고, 환자들이 자기성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고 이상한 막대기가 나와 있는 욕조주변을 둘러싸면 Messmer는 그 화학물질에 젖은 새 막대를 가지고 그 막대를 환자의 환부에 문지르고 때로는 환자들에게 철분약을 먹게 해서 자석의 자기력이 잘 통하게 해서 치료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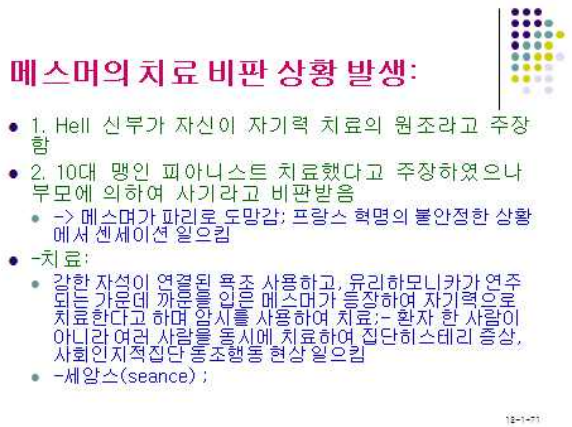
12-1강 file no.69

윗 그림에 메스머가 치료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럿이 모여서 치료하는 장면이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조그만 물통에 연결시켜서 자기력으로 치료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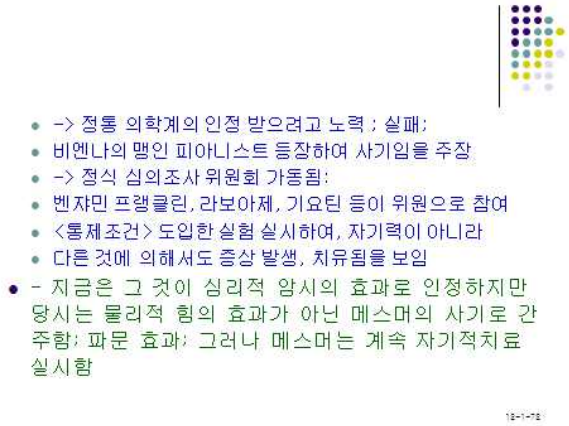
12-1강 file no.70

그 다음 그림에서 Messmer가 자신이 치료하는 자기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주로 여자 환자에게) 자기 손을 가까이 대면 거기서 자기력이 나와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치료에서는 현대적 정신분석 세션과는 달리, 언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그저 신체적 접촉이나, 메스머의 카리스만 적용되었을 뿐이었다.



12-1강 file no.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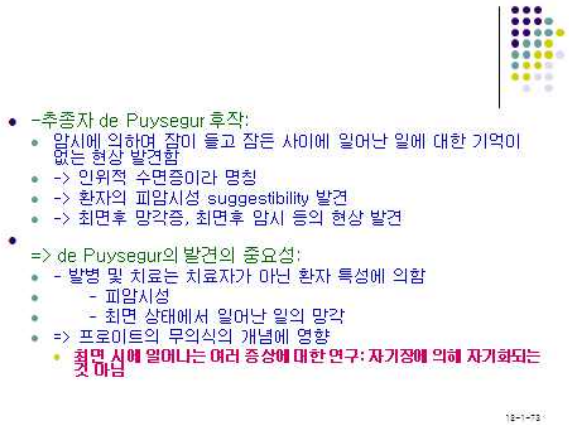
그러나 Messmer의 이런 치료방법에 대해서 비판이 발생했다. 메스머의 멘토이었던 Hell 신부가 자신이 자기력 치료의 원조라고 주장했고, Messmer가 맹인 피아니스트를 치료했다고 했는데 그 맹인의 부모가 치료가 안됐고 사기라고 해서, 메스머는 프랑스 파리로 도망갔다. 비엔나 의사협회에서 그의 이론이 사기라고 하여 축출당한 그는 프랑스에서는 상류 귀족 사회와 연결이 있어서 그의 입장을 널리 펴고 자석 치료 살롱을 만드는데 있어서 유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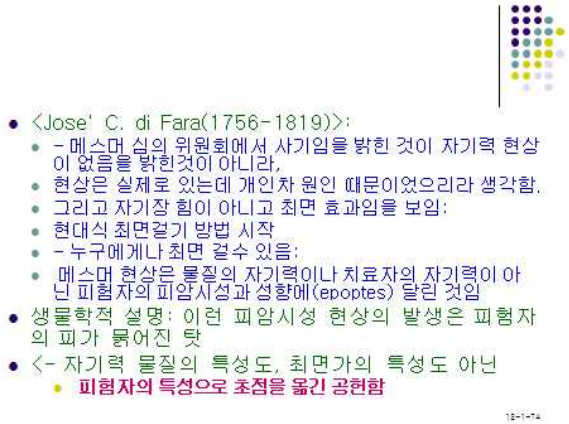
12-1강 file no.72

그러면서 전통의학계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라보아제, 기요틴 등이 의원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실험한 결과 메스머의 자기력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의해서도 치료가 된다고 해서 Messmer의 치료효과가 반증이 되었다. 반증이 됐지만 Messmer는 치료를 계속 했다.

12-1강 file no.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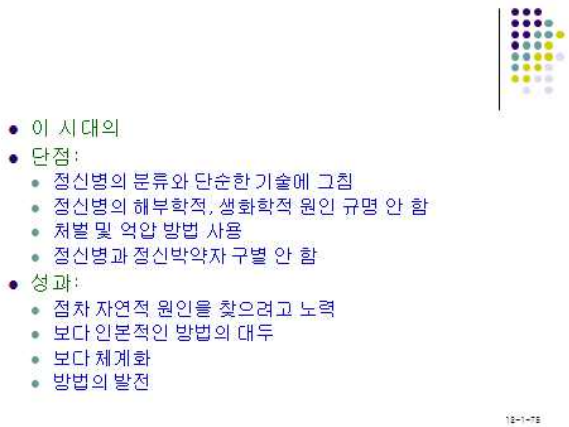
메스머의 여러 추종자들이 있었다. de Puysegur는 잠든 후의 기억이 없는 현상, 최면 후 피암시성과 망각증 등에 관한 현상들에 주의를 주었으며 최면 시에 일어나는 여러 증상에 대해 연구하여 후에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주었다.



12-1강 file no.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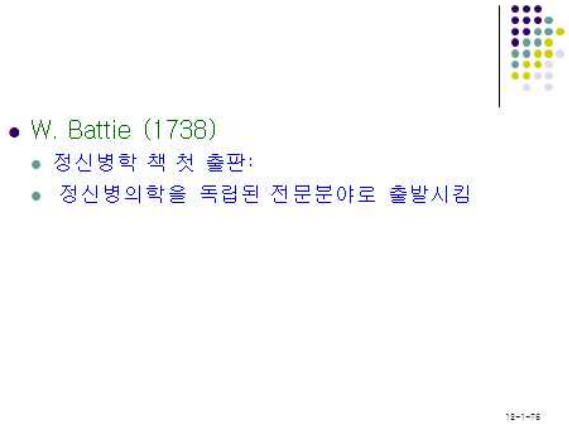
다음으로 Jose'C di Fara 라는 사람은 메스머의 치료효과가 자석의 자기장 힘이 아니고 최면효과임을 주장하며 환자에게 최면을 걸어 치료효과를 보여주었다. 메스머 현상은 물질의 자기력이나 메스머라는 치료자의 자기력이 아닌 피험자의 피암시성과 성향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로써 정신병의 논란의 초점이 물질적인 자기력에서 환자의 피암시성으로 옮겨가게 되고 최면이 중요한 치료방법으로 등장하게 됐다.

12-1강 file no.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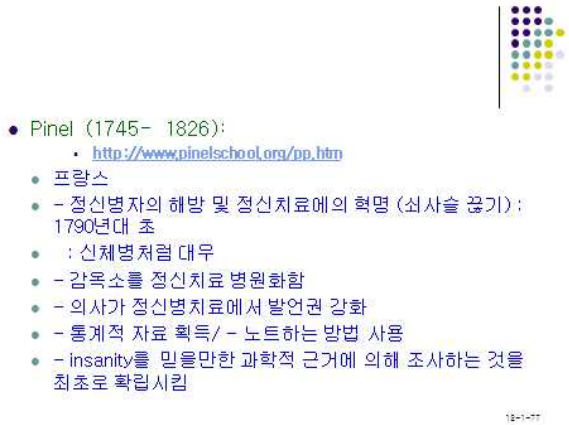
이 시대의 단점은 정신병의 분류와 단순한 기술에 그치고 정신병의 해부학적 생화학적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벌 및 억압방법을 사용하고 정신병과 정신박약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러기는 했지만 이 시대의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점차 정신병의 자연적 원인을 찾으려고 하게 되고, 보다 인본적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치료 방법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12-1강 file no.76
12-1강 file no.76



12-1강 file no.76

1738년에 W. Battie는 정신병학 책을 처음으로 출간시켜 정신병의학을 독립된 전문분야로 출발하게 했다.



12-1강 file no.77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프랑스의 의사 피넬(Philippe Pinel; 1745 - 1826)인데, 그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정신병자들의 병원이요 감옥소이었던 Salpêtrière에서 정신병자를 쇠사슬에서 풀어주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 장면에 대한 그림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File:Philippe_Pinel_%C3%A0_la_Salp%C3%AAtri%C3%A8re.jpg. (그러나 정신병자들의 쇠사슬을 최초로 끊은 사람은 피넬과 함께 Bicêtre 병원에 있던 총독 Jean-Baptiste Pussin이었으며 1797년이었다. 피넬이 최초로 단독으로 정신병자들의 쇠사슬을 끊었다는 이야기는 피넬의 아들과 피넬의 제자 의사 Esquirol이 퍼뜨린 신화이다. 피넬이 실제로 쇠사슬을 끊은 것은 그 3년 뒤에 Salpêtrière 병원에서이었다.) 피넬은 정신병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감옥소가 아닌 병원으로 만들고, 실제로 정신병 치료를 하고, 통계적 자료를 만들고 하는 등의 일을 해내어서 의학적으로 정신병을 조사하고 치료하게끔 하는 그런 큰 움직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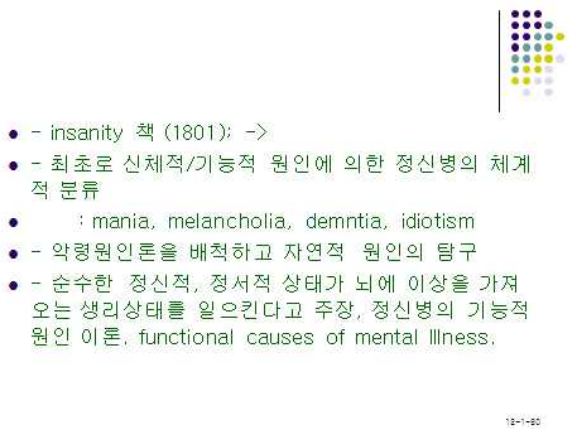
12-1강 file no.78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그림에서 맨 오른쪽 위의 그림은 쇠사슬에 묶인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 정신병 환자들을 감금소로부터 피넬이 해방시키는 장면에 대한 그림이다.

12-1강 file no.79

Pinel의 정신병자 해방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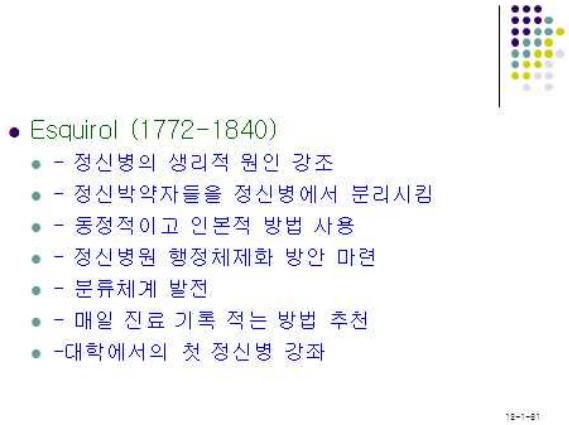
http://en.wikipedia.org/wiki/File:Philippe_Pinel_%C3%A0_la_Salp%C3%AAtri%C3%A8r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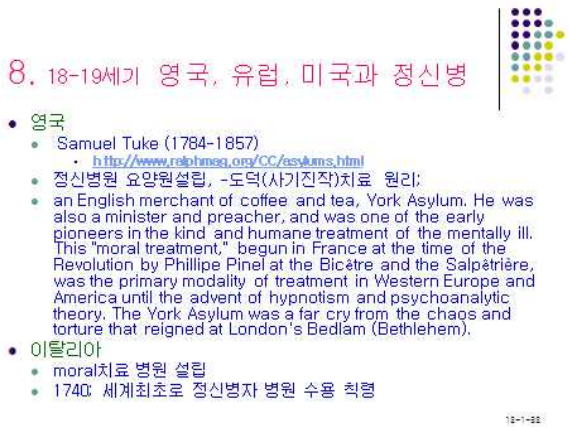
12-1강 file no.80

또한 피넬은 정신병에 대한 책을 썼고. 최초로 신체적 기능적 원인에 의한 정신병의 체계를 분류해서 mania, melancholia, dementia, idiotism, 이런 것을 분류하고, 악령에 의해서 정신병에 걸린다는 것을 배제하고 순수한 생리상태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

12-1강 file no.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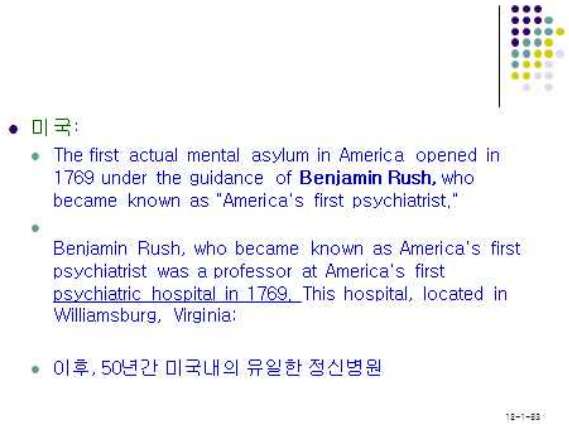


다음에 의사 Esquirol(1772-1840)은 정신병의 생리적 원인을 강조하고 정신박약자들을 정신병에서 분리시키고, 동정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정신병 강좌를 체계적으로 시작했다.



12-1강 file no.80

그러면 영국, 다른 유럽 국가, 미국 등에서는 정신병에 대한 생각과 치료 방법이 어떠했을까를 살펴보면, 영국에서 Samuel Tuke라는 사람이 도덕적 치료, 그러니까 마귀 악령치료가 아니라 도덕적(심리적) - 영어의 'moral'이라는 단어는 '심리적'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음에 유의할 것 - 치료를 했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식으로 치료가 시작됐다.



12-1강 file no.83

미국에서도 그런 식의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Benjamin Rush(1745-1813) 미국의 최초의 정신의학자로서 현대 과학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방법이 모두 과학적인 것은 아니었다.

12-1강 file no.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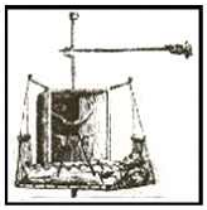
다음에 Benjamin Rush가 치료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는 정신병의 치료방법을 변화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 관습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방법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 신념:
  - mental illness could be diagnosed, classified and treated humanely.
- 환자들의 삶, 환경 개선 노력; 수갑, 쇠사슬 제거 노력
- Although it seems primitive by today's standards, the "tranquilizing chair" invented by Dr. Rush was a humane alternative to the straight jacket;
- the chair was intended to reduce stimulating blood flow to the brain by binding the patient's head and limbs.
- a pioneer in the yet-to-be established field of occupational therapy, regularly encouraging patients to sew, garden, listen to music or exercise during the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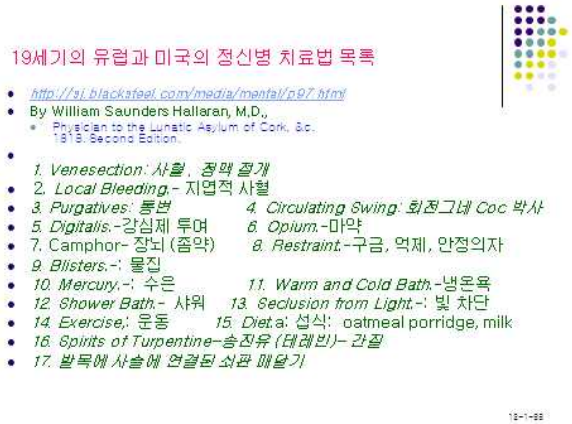
12-1강 file no.85

그는 정신병은 진단되고, 분류되고, 인간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보았고, 정신병 환자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수갑이나 쇠사슬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을 계속 사용하였다. 그는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안 정시키는 의자'라고 해서 꽁꽁 묶어놓는 의자 방법을 (죄이는 것을 완화했지만) 사용하거나, 회전그네를 사용하였다.

- "tranquilizing chair"



12-1강 file no.86



12-1강 file no.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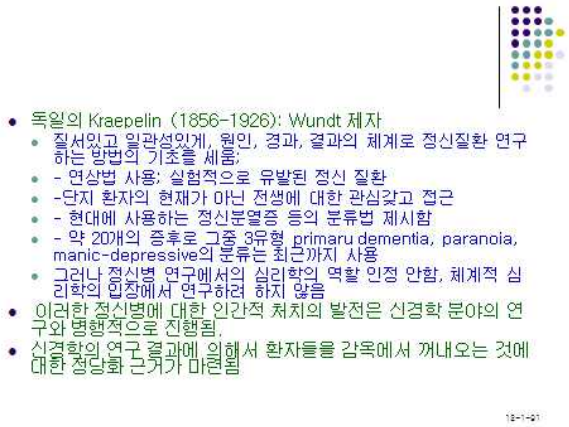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의 정신병 치료법 방법의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방법은 19세기 초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에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일부 후진 국가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다.

12-1강 file no.88

그 다음 영국의 죠지 3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어 정신병 연구 기금이 조성되는 듯했으나 진척이 없었고, 모우구리 소년 발견과 더불어 정신박약의 문제가 한 때 세간의 각광을 받아 정신박약 치료원도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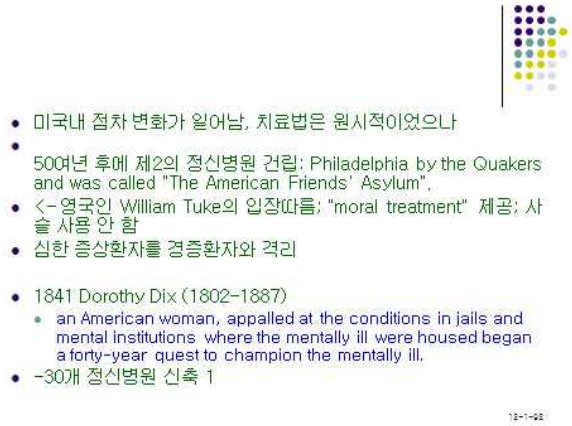
12-1강 file no.89

한편 독일의 Griesinger는 정신병 치료가 사제들이 아니라 의사들이 할 일임을 주장했고, 영국의 Maudsley처럼 정신병의 원인을 성적 갈등과 같은 다른 심리적인 원인에서 찾으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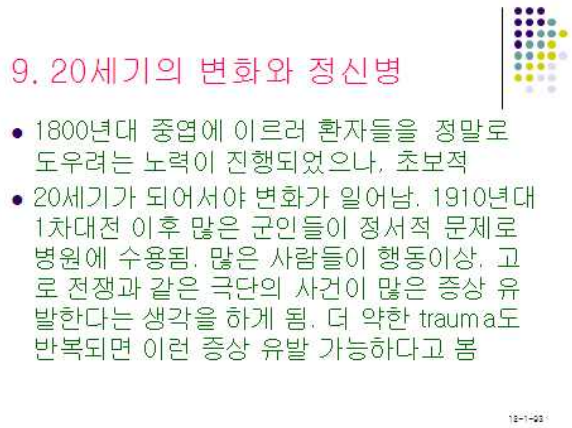
12-1강 file no.90

그 다음에 독일의 분트의 제자 Kraepelin(1856-1926)이 출현했는데, 그는 정신병을 분류하였고 연상법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였다. 그의 정신분열증 분류체계는 최근까지 사용되었고, 연상법은 나중에 프로이트가 사용한 방법에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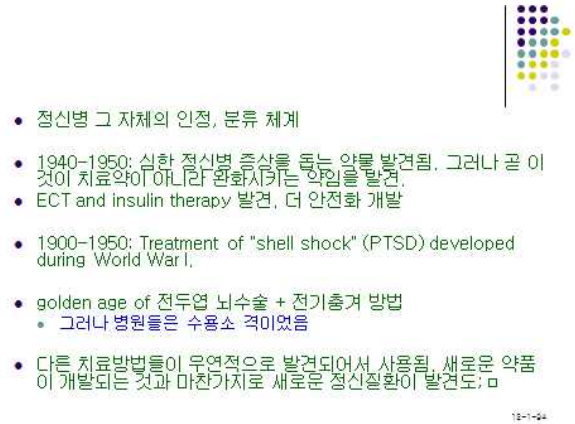
12-1강 file no.91

다음에는 미국 내에 점차 변화가 일어나서 (이 당시 과학을 비롯한 학문의 중심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러국가에서 미국으로 점차 옮겨가기 시작했다.) 정신병에 대한 개념과 치료 방법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영국의 William Tuke의 입장을 따른 도덕적 치료 등이 치료의 중심이 되었고 여러 정신병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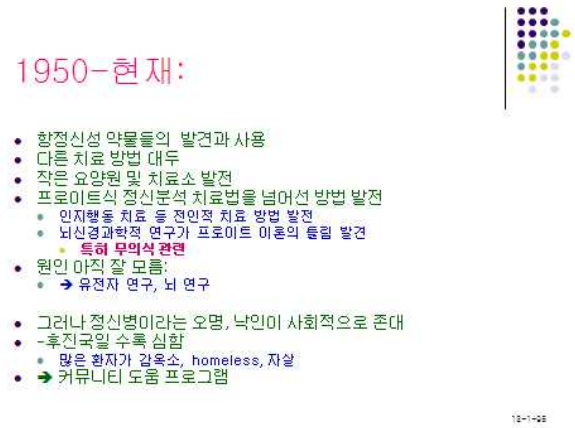
12-1강 file no.92

20세기에 들어서서 정신병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보면,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환자들을 정말로 도우려는 그러니까 동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우려는 노력이 진행됐으나 초보적이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군인들이 정서적인 문제로 병원에 수용되고 하니까 많은 이상행동이 나오게 되어, 보통사람, 정상인도 이런 증상이 될 수 있다는, 즉 특별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환경 상황이 나쁘면 이런 것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 나타났다.



12-1강 file no.93

그 다음에 정신병 그 자체를 인정하고, 분류체계가 발전되고, 의학에서 다뤄지고, 여러 약물치료방법이 생겨났다. 20세기 초반에는 정신병을 뇌의 전두엽을 수술을 해서 치료한다던지 전기충격으로 치료하려는 그런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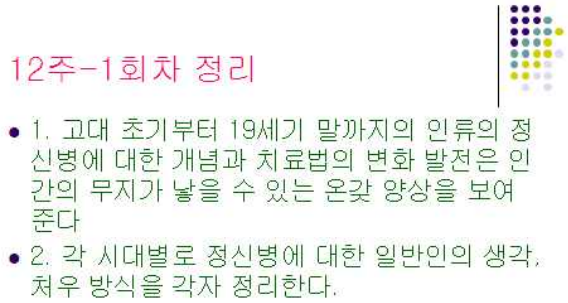


12-1강 file no.94

195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보면 그런 초기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이론이 나와서 정신병이 정신의학의 중요한 한 분야가 되었고, 정신병 이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치료방법이 발전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서 현재 사이에는 프로이트 식 정신분석치료 방법을 넘어선 인지행동 치료방법이라든지, 뇌신경과학적 치료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발전이 되고 유전자 연구라든지, 뇌의 신경과학적 연구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병이라는 낙인이 사회적으로 오명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계속 존재하며 후진국일수록 이런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으로 12주 1회 차 강의를 끝마치겠다.
12주 1회차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2-1강 file no.95

12주 1회 차에서는 주로 20세기에 이르르기까지 인류가 고대에서부터 정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치료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하려고 대처해왔는가를 살펴본 것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과거에 고대 시대부터 중세를 넘어서면서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인간이 정신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함으로 인해서 정신병 환자를 악령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동물처럼 취급하여 정신병 환자를 죽이거나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참 인간의 무지라는 것이 상당히 인류 문화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12주 1회차 강의를 끝맺고, 다음 2회 차에서는 무의식 개념의 발전과 프로이트 이론을 중심으로 심리역동, 정신병학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